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성과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윤 경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성과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

김 정 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윤 경

인 준 서

정윤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서 수 연 (인)

심 사 위 원 김 정 규 (인)

심 사 위 원 조 영 일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성폭력 통념 및 허영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41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 성폭력 통념 척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 성역할 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35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1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이 있을수록 성폭력 통념, 성폭력 허용도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에서 전통적 성역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과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으로써 성역할 태도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섹스중독, 성폭력 통념, 성폭력 허용도, 성역할 태도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1) 연구문제 및 가설 ····· 7

2) 연구모형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사이버섹스 중독 ····· 9

2.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 ····· 13

3. 성역할 태도 ····· 16

4.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 ····· 18

5.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 19

6. 성역할 태도와 성폭력과의 관계의 관계 ····· 19

Ⅲ. 연구 방법 ····· 21

1. 연구 대상 ····· 21

2. 측정 도구 ····· 21

1) 사이버섹스 측정도구 ····· 22
2) 성폭력통념 측정도구 ····· 23
3) 성폭력허용도 측정도구 ····· 24
4)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 ····· 24
5) 우울 측정도구 ····· 25
3. 자료분석 ····· 26

IV. 연구결과 ····· 27
1. 일반적인 특성,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26
2. 매개모형 검증 ····· 27
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에서 성역할 태도 매개 효과 ···· 27
2)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허용도에서 성역할 태도 매개효과 ·· 28

V. 논의 ····· 3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사이버섹스 중독척도의 신뢰도 ····· 22
표 2. 성폭력통념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 23
표 3. 성폭력허용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 24
표 4. 성역할 태도의 신뢰도 ····· 25
표 5.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 28
표 6. 변인들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 상관관계 30
표 7.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에 따른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32
표 8.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 33
표 9. 우울을 통제한 경우의 상관관계 ····· 34
표 10. 사이버섹스 중독, 성폭력통념,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 … 35
표 11. 사이버섹스 중독,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 37
표 1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 39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8
그림 2. 연구모형 ····· 8
그림 3.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와 성폭력 통념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모형 연구모형 ····· 35
그림 4.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와 성폭력 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모형 연구모형 ····· 3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로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체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익명성이란 이름으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하기 쉽게 한다. 이러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은 나아가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양돈규, 2000). 최근에는 인터넷과 더불어 스마트 폰과 태블릿 등 각종 컴퓨터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사이버상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SNS를 통한 의사소통, E-Book의 확산, 온라인 강의 등의 증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박준혁, 김정범, 류성영(2006)의 연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 인터넷에서의 전자 상거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여러 다른 문화와의 교류, 게임 등 다양하면서 편리한 기능은 현대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더불어이와 함께 사이버상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현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50,69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으며, 과거 2011년에는 9,333건, 2012년 13,761건 2013년 27,757건, 2014년 49,737건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 비해 2015년의 수치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심의 및 시정요구의 증가는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이미 많은 양

의 음란•성매매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SNS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SNS의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26건, 2012년 246건, 2013년 3,845건, 2014년 1만667건, 2015년 1만 9,68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 환경은 음란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음란물 접근이 쉬운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음란물 접근을 통해 현대사회는 신종 단어인 사이버섹스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다.

Young(1998)은 사이버섹스란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음란채팅, 포르노 시청들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적절한 음란물 활동은 가벼운 기분전환이나 적당한 유희를 주지만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불면, 식욕 감퇴,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회피와 철수,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직업이나 학업에서의 기능 감소를 가져다 준다. 게다가 개인 정보 유출, 성매매, 도박 등의 유해한 정보의 확산과 같은 부작용 역시 가져다 주었다. 게다가 남영옥(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의 큰 공통점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Carnes(1983)는 이러한 중독은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처음 무언가 몰두하는 것이 중독의 시작으로, 그 1단계를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2단계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3단계는 심한 중독으로, 개인이 혼자 힘으로 중독을 벗어날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중독적인

상황을 계속 되풀이한다.

윤예진, 신성만(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독의 유형 중 하나가 사이버섹스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이버섹스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개인과 가정, 사회의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다 주게 되며,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중독 상태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를 사이버섹스 중독이라고 한다(Young, 2001). 이로 인해 실업, 법적인 문제로의 처벌, 신체적인 위험, 재정적 위험, 건강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사이버섹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2015년 대한민국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소라넷은 1999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성인사이트로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16년간 수사망을 피해서 운영되어온 불법 음란 사이트이다. 여자 친구나 아내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나 만취한 여성을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성폭력한 후 사이트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는 사이버섹스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지금은 폐쇄되어 없어졌지만, 운영자를 잡기 위해 경찰은 소라넷 서버가 있는 미국과 네덜란드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였고 2016년 6월에 운영진들을 검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검거에 실패하였고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사이버섹스 활동은 법적인 문제를 동반하곤 한다(SBS 뉴스 송민호, 2016.06.14).

이와 같은 현상은 성범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으 보여주며.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더욱 지지받을 수 있다. 김 성(2012)에 따르면 사이버섹스 중독수준과 실제 성폭력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은 공유가 쉽고 애인대행 사이트 및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과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대상을 찾기가 쉬우며, 이를 통해 성적 판타지를 채우고, 쾌락적인 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적용 시켜 사이버섹스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 중 하나로 사이버섹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용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많은 인터넷 중독자와 게임중독자를 발생시켰다.

Young(2008)은 인터넷 중독자의 5분의 1이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았을 경우,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백68만 명이 인터넷 중독으로 밝혀졌고, 약 5백81만 명이 스마트 폰 중독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를 Young (2008)의 이론에 적용시키면 약 170만 명이 사이버섹스 중독일 수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자가 절대 적지 않은 수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비해 관련 연구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위유형인 사이버섹스에 관해서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사이버섹스에 관한 연구가 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상에서 사이버섹스 활동이 클릭 한 번만으로도 쉽게 이루어지고 접근하기 쉬워졌다. 과거에는 음란물이 남성의 성적 욕망과 성문화라고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도 음란물을 쉽게 접하게 되는 문화가 되었다. 이렇듯 사이버섹스는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사이버섹스 활동을 통해 성을 배우기도 하고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섹스가 성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 혹은 태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섹스의 활동 중 하나인 음란물에 관한 연구로 김준호와 박해광(199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음란

매체는 직접 영향을 끼쳐 성 비행을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그릇된 환상을 심어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영단(2002)의 연구 역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음란물을 접촉한 남학생들이 음란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성폭력 통념의 수용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석재(1999)에 의하면 성폭력 통념이란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은 성(Sexuality)에 대한 남성 위주의 시각과 폭력 행위의 허용 경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념은 “성폭력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성충동을 유발하고 상대방이 이를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성폭력 통념은 폭력 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서 합리화시키고,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성폭력피해경험 여성에게 전가한다. 지영단(2002)에 의하면 성폭력 통념은 그 사회의 성문화나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 폭력에 대한 반응 양식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의 관련 하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역시 사회 문화적 요소로 보고 성에 관한 통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는 다시 성폭력 통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가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연구가 있다. 이석재(1999) 연구에서는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폭력 통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남미정(2004)의 연구에서는 남자이면서 남성성을 가진 집단이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가장 높게, 여자이면서 남성성을 가진 집단이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이 남성 집단에게만 성폭력 통념에 영향을 미치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여성성을 구

분하기 보다는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게다가 성폭력을 이르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성욕과 같은 생리심리학적 요인(Ellis, 1991) 두 번째,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Berkowitz, 1993), 세 번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표현,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 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Groth, 1979; Lisak, 1991)이 있다고 하였다. 김은주(1996)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성역할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성폭력 통념 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는 성역할 태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사이버섹스 중독이 성폭력 통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폭력을 인식하는 데 있어 즉, 성폭력 통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성역할 태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섹스의 중독적인 성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사려 된다.

2. 연구 문제

1)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역할 태도,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의 수용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성역할 태도에서 남성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성폭력 통념의 수용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4. 성역할 태도에서 남성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역할 태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가설 2-1.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역할 태도를 매개하여 성폭력 통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역할 태도를 매개하여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통념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연구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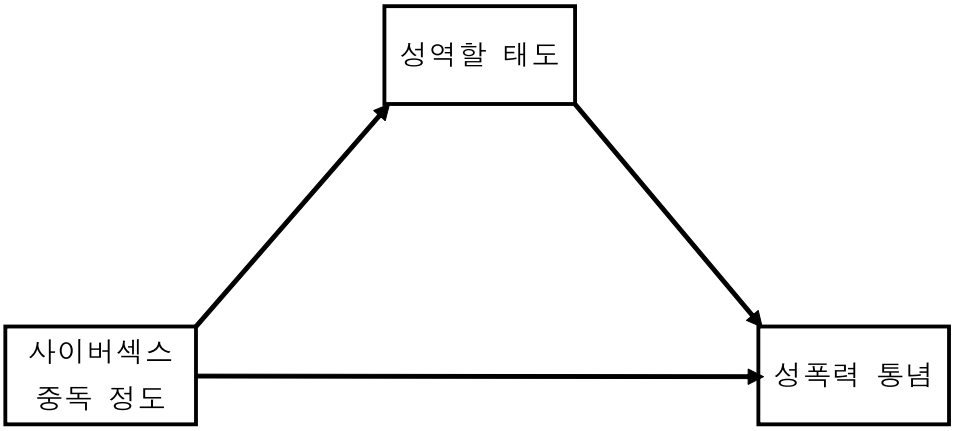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 성역할 태도, 성폭력 통념 관계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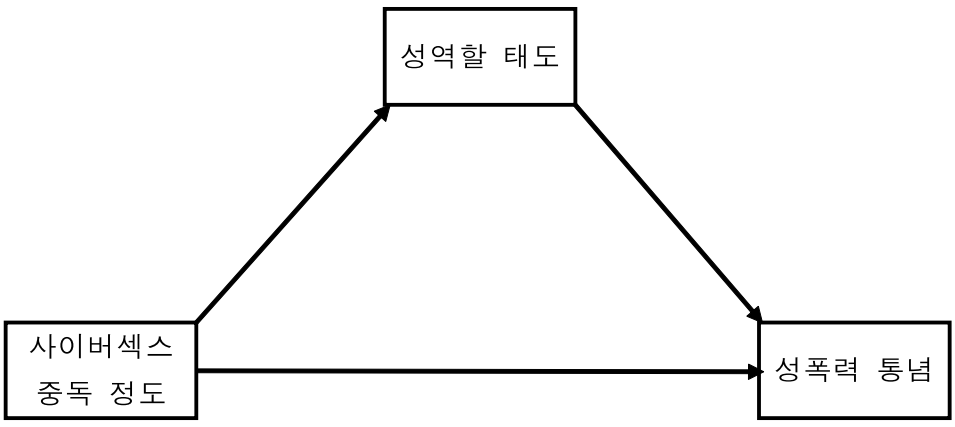

그림 2.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 성역할 태도, 성폭력 허용도 관계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섹스 중독

1) 사이버섹스의 개념

사이버섹스라는 용어는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방법으로 인해 나타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점차 인터넷 기술이 점차 발전되고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의 성 관련 생산물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생겨나면서 그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Delmonico(1977)는 성 목적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사이버섹스라고 정의하였으며, 사이버섹스에는 포르노 검색, 성적인 목적의 채팅, 문자메시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았다.

Young(2001)은 사이버섹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형태의 성적인 자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그 예로는 채팅, 포르노그래피 이미지, 웹캠을 이용한 라이브 성 방송, 다운로드 가능한 비디오 등이 있다.

김 민(2011)은 사이버섹스를 “인터넷과 무선 정보 통신망 등에서 이용 가능한 사이버 음란물을 매개로 타인과 의도적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모든 시도와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성적인 시도와 움직임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X등급 이미지, 게임, 동영상, 야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오프라인상 접촉 제안과 에로틱한 채팅과 메일 등을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자료들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모두 일컫는 개

념, 즉 포르노 시청, 음란 채팅, 야한 소설 구독, 야한 만화 구독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2) 사이버섹스 중독의 개념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개념적 접근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입장과 또 하나는 성중독(sex addiction)의 현대적 변종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정의 또한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으로 보았으며, 이를 주장하는 대표 학자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사이버섹스 중독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성중독의 현대적 변종으로 보는 접근 방식은 살펴보지 않았다.

사이버섹스 중독을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로 Kimberly S.Young을 들 수 있다.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 유형을 사이버 관계 중독(Cyber-Relationship), 사이버섹스 중독(Cybersex addiction), 인터넷 강박증(Net Compulsions Addiction),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강박적이고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연구자 및 관련 단체에서도 인터넷 중독 하위유형으로 Young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사이버섹스 중독을 정의하고 있다(김 민,2010).

본 연구에서는 Young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이란 지속적 혹은 충동적으로 몰입하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개인, 가정,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은 성적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 사진, 소설뿐만 아니라 성인 채팅방, 성적 판타지에 대한 역할 놀이(Adult Fantasy Role-play) 사이트 등의 이용 등을 의미한다.

3) 사이버섹스 중독의 특징

Cooper, Putnam, Planchon 와 Boies(1999)에 따르면 성 중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섯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사이버섹스 중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사용자들의 부정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으며, 과소평가하고 축소한다. 둘째, 사이버섹스 활동을 그만두기 위한 결심과 노력이 반복적이면서도 계속 실패한다. 셋째, 사이버섹스와 관련된 행동, 즉 사이버섹스의 기회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상상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숨기려는 행동 등에 대해서 과한 시간 투자를 한다. 넷째, 가정과 사회 그리고 스스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섯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이버섹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Cooper, Putnam, Planchon and Boies(1999); 김 민, 2010 재인용). 이러한 특징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섹스만을 강조하게 되며, 이는 다시 현실 세계에서의 성과 관련된 심리•행동적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은 심각하게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성 의식 및 성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성 기능 장애를 가질 우려가 크다(김 민, 2010).

Young(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많이 보고 여성들은 성적 채팅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사이버섹스를 통해

왜곡된 성적 판타지(Sexual Fantasy)를 갖게 되고 이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다 자위행위를 하고, 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일으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4) 사이버섹스 중독 관련 요인

김은경(2001)에 따르면 10대, 20대가 사이버 성폭력 가해 경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한다. 이는 10대, 20대가 인터넷과 온라인상의 관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또 인터넷상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역시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의미로 사이버섹스에 가장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집단이며, 사이버 성폭력 가해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김소정, 이영철, 2011). 또한, 사이버섹스를 성 관련 변인과 관련시킨 연구로 성 의식, 성태도, 성행동, 성 지식, 성비행이 있다(주석진, 2002: 남영옥, 2004; 김성숙, 구현영, 2007; 윤명숙, 2012). 주석진(2002)은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 비행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비슷하게 남영옥(2004) 연구에서도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 간의 관계에서 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신체접촉, 강제적 키스나 포옹, 강제적 성관계 등의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숙, 구현영(2007)에 따르면 사이버섹스 중독은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와는 역 상관 관계, 성폭력 허용과는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명숙(2012)은 청소년의 성 의식•성 태도•성 행동이 사이버섹스 중독을 예측 가능하며 성 의식과 성 태도에서는 부적 상관을, 성행동에서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2.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

1) 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대두되고 사회문제로 야기된 것은 성폭력 특별대책위원회가 설립된 1992년부터이다. 이후 성폭력방지 특별법(1994)이 제정되면서부터 성폭력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음행매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공연음란, 약취유인, 강도성폭력, 특수성폭력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박미란, 2007). 다시 말해, 성폭력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강도성폭력, 음란 전화, 음란통신 등과 같이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언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조현빈, 2006).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폭력 개념을 상대방의 의사와 반하여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성폭력 통념의 개념과 관련 요인

Lonsway와 Fitzgerald(1994)에 의하면 성폭력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 혹은 부인하는 데 사용되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 및 성폭력범에 관한 편파 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잘못된 신념을 일컫는다(Burt, 1980). 이러한 신념은 때로는 남성의 성적 공격을 부인하고 정당화시키는데 적용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이는 곧 잠재적 성폭력범들이 자신의 범죄

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체계를 불러온다(Lambert & Raichle 2000).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권력, 힘의 상대적인 우위 등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폭력 통념은 발생하게 되며, 가정폭행이나 여성폭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된다(박선미, 2009).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심리적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Burt(1980)는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제시한다. 여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르고 수용할수록,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수용하는 경우가 크다는 것이다. Muehlenfard & Linton (1987)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 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남성 지배적 성 역할을 따르는 남성일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관계없이 성폭력 통념을 수용할수록 발생한 데이트 성폭력 사건을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덜 하고, 동시에 남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나타났다. Beverly(1996)는 성폭력 통념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수용하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주장했다.

이 밖에 국내의 성폭력 통념에 관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남현미(2003)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가해 경험이 있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게 나왔음을 나타냈다. 이석재(1999)는 성폭력 통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행동이 많고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성폭력 통념이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성폭력 통념을 수용할수록 성행동과 성폭력의 경험이 많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 통념이 실제의 성행동, 성폭력 경험과 상관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이지연과 이은설(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성폭력 수용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데이트 성폭력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더불어 여성의 경우 성폭력 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유발시키는 간접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3) 성폭력 허용도 개념 및 관련 요인

성폭력 허용도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허용도로 행동 속성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관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다시 말해, 사례 유형의 성폭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호선민,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에서는 성폭력 허용도를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언어적 성폭력으로, 성희롱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를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둘째, 물리적 성폭력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셋째, 정신적 성폭력으로 스토킹과 같은 행위들로 정신적인 압력을 통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허용도 개념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3가지 하위영역을 바탕으로 언어적, 물리적, 정신적 성폭력 모두를 포함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성폭력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권수현(1988)의 가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상적인 남성 행동의 일부로 보는 성폭력 각본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극히 일부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

고 이는 곧 자신이 처한 관점에서만 성폭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고교생의 성폭력 의식을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영역에서 살펴본 연구(김율리, 2000)에 따르면, 여학생은 모든 영역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반면, 남학생은 신체적 영역과 언어적 영역 중 음란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만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영희, 이규은, 윤양소(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성폭력 인식에서 성별 및 연령차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성역할 태도

1) 성 역할과 성역할 태도의 개념

섹스의 표면적인 개념은 생물학적인 것을 나타내면서 육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큰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섹스 이자체도 사회적 문화가 승인하는 다양한 태도와 가치에 영향 받는다(Millett, 1970, 김전유경, 2009). 성행동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태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성역할이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주어지는 남녀의 특정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Ruth,1990; Faulkner, Kolts & Hicks; 윤예진, 2008에서 재인용). 성 역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심리적 특질로 남성은 활동적, 공격적, 경쟁적인 특질을, 여성은 수동적이고 이타적이고 양육적인 특질을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 받고 사회화된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주어지는 책무로서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생산 활동을,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양육 및 가사노동을 고유한 사회적 책무로서 부여받는다(Pleck, 1975).

이렇게 성 역할을 개인이나 사회 혹은 집단에 주입시키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를 성역할 태도라고 한다. 사회적 학습을 통해 성 역할을 배우게 되면서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개개인의 성역할 신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역할 태도는 크게 전통적 태도와 페미니스트 태도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태도는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역할은 양육이나 가사와 같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입장이며, 페미니스트 태도는 사회가 심리적 성 차이를 만든 것이며, 남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Cota & Xinaris, 1993).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성역할 태도를 전통적 태도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로 보았다. 전통적 태도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것으로 여성의 역할을 양육이나 가사와 같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입장으로 보았으며, 전통적 태도가 적을수록 양성평등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남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고자 하였다.

2) 성 역할과 성역할 태도와 관련된 요인

전통적 태도에 영향을 받은 남성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기저에는 여성 비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성 상품화로 보며, 이러한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극단적인 경우가 성매매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광고에 여성의 몸매가 이용되거나, 포르노, 성인방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섹스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신성자(1997)는 거칠고 공격적인 것이

남자답다는 남성의 잘못된 믿음이 성적 상황에서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한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하게 Muehlenhard & Linton, 1987)의 연구에서도 남성 주도의 성 역할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이성 간의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조사되었다.

4.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관련성이 크다. 김미경(2000)은 음란물에 접촉한 이들은 성과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며 쾌락적인 성을 추구하는 도구적 성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윤숙(2002)은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이 많고 오래될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폭력 허용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성폭력 허용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소향(2003)은 사이버 음란물을 자주 지속적으로 볼수록, 언어적 • 정신적 성폭력보다 물리적 성폭력의 허용도가 크다고 보고했다. 즉 음란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언어적 성폭력 허용도가 크고, 오랜 시간 동안 볼수록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ephen과 Donell(1993)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데이트 성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1,149명을 대상으로 성행동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할 위험이 보다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 장희숙, 조현각(2001)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성폭력과 폭력 허용적 태도는 서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5.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인터넷 음란물에서 묘사하는 성은 자극적이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비하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왜곡된 성적 표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실제로, 현대 성문화는 남성이 성행위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성에 관련됨에 있어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한다. 반대로 여성은 무성적 존재여야만 한다고 여겨왔다(박미란, 2007).

Lee(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4)의 연구에서는 음란물 접촉빈도가 높으면, 이성 친구를 대할 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향이 높았으며, 성적인 외모를 중요시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6. 성역할 태도와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

사회적 학습을 통해 성역할 태도를 배우고, 형성한 남성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비인격적이고, 대상적이며, 목적 지향적이다. 그 기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사고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 비하적인 사고는 여성을 보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성 상품화를 생성해냈다. 남성의 전통적인 태도적 성 역할 신념은 성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 받아들이기도 한다(신성자, 1997). 또 다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em(1974)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성이 클수록,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받아

들인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이석재, 최상진(2001)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남성적 사고가 클수록,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은 물론, 성 관련 행동의 경험 역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훈(2000)의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수용했으며, 학년별로는 남학생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성역할 유형별(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성폭력 통념 수용도를 비교한 결과 남성성 유형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도 가장 높았고, 여성성 유형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성 역할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성인 남녀 410명을 임의 표집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개인의 성적인 사생활을 묻는 것이 많아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에 대해 중점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이버 섹스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응답자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410명중 58명이 이에 해당되어 연구대상에 제외시키고 남은 총 35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기초 설문지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 성별, 연령, 직업 상태, 가구형태, 애인유무, 사이버섹스 빈도 및 시간, 접촉경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사이버섹스 중독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2002)이 제작하고 개발한 것을 김민(2003)이 수정•번안한 사이버섹스 중독 검사지(

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응답항목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결코 아니다=0, 아주 드물다=1, 가끔 그렇다=2, 종종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거의 항상 그렇다=5). 총 점수 합을 가지고 중독 여부를 판별하며, 0-30이면 비중독, 31-49점이면 경미한 중독, 50-79점이면 중등도의 중독, 80점이상 100점이면 심각한 중독 상태를 의미한다. 문항 내용은 사이버섹스에 이용하는 시간과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사이버섹스 사용으로 인한 일상적 생활의 부적응, 온라인 상황에서의 성적 강박 행동과 인터넷에 대한 의존적 특성, 사이버섹스로 인한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통제조절력과 행동상의 문제, 사이버섹스를 통한 보상 욕구 여부, 오프라인에서의 성적행위변화와 전이 여부, 비정상적 온라인 성적 행동 여부 등을 내포하고 있다(김민, 2003; 윤예진 등). 내적 합치도는 김민(2003)의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섹스 척도 총합이 31이상이 될 때를 중독집단, 사이버섹스 척도 총합이 30이하면 비중독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표 1. 사이버섹스 중독척도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내적 합치도 계수
사이버섹스 중독척도	총 20문항	.86

3) 성폭력 통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통념을 측정하기 위해 Burt(1980)가 제작하고 고안한 것을 이석재(1999)가 수정•보완한 성폭력 통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이

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력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성폭력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각 문항은 9점 척도(1=매우 부정～9=매우 긍정)로 구성되어 있다. 이석재(1999)의 신뢰도 계수는 성폭력 피해의 책임귀인 .89,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 .79, 음란성과 성폭력에 대한 허위조작 .89,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66이었고 전체 척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성폭력 피해의 책임귀인 .76,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 .54, 음란성과 성폭력에 대한 허위조작 .79,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71이었고 전체 척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폭력통념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내적 합치도 계수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3	5.10,11	.71
성폭력 피해의 책임 귀인	8	2,3,4,12,13,17,18,19	.76
음란성과 성폭력에 대한 허위조작	5	6,7,8,14,16	.79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	4	1,9,15,20	.54
전 체		20문항	.90

4) 성폭력 허용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행위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원(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주요 일탈 행위에 해당되는 12가지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부부 성폭력,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폭력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 정신적 성폭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0점, '대체로 허용할 수 없다'=1점,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2점,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점수의 합은 0점-36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박미란(200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표 3. 성폭력허용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내적 합치도 계수
언어적 성폭력	4	1,2,3,4	.60
물리적 성폭력	5	5,6,7,8,9	.71
정신적 성폭력	3	10,11,12	.69
전 체		12문항	.78

4)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alin과 Tilby(1978) 개발한 The SEX-Role Ideology Scale(SRIS)를 Albert와 Skevoulla가 간략한 버전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김인수(2014)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선택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축형 성역할 태도 측정 척도이다. 리커트 7점 척도이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경향과 페미니즘적 경향 두 가지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미니즘 경향 점수(3,4,8,11,12 문항)를 역산하여 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경향이 있는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페미니즘 경향이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태도일수록 남성과 여성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페미니즘적 태도일수록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문항 내용은 가정 내에서의 남녀 역할, 결혼 후 남녀 역할과 행동, 남자와 여자의 성적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Albert & Skevoulla, 1993; 김인수, 2014; 재인용). 김인수(2014)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75로 나타났다.

표 4. 성역할 태도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내적 합치도 계수
성역할 태도	16	1,2,5,6,7,9,10,13,14,15,16	.89
		(3),(4),(8),(11),(12)	.72
전 체		16문항	.88

주. ( )는 역채점 문항

5) 우울 측정도구

사이버섹스 중독이 우울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진인영, 2005; 이정윤, 이상희, 2004)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에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척도를 사용하였다. 번역된 3 가지의 한국판 CES-D 척도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통합하여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1-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겸구 외(2001)의 연구에서 통합적CES-D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지수는 .83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해 SPSS Statistics 21 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역할 태도,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폭력 통념 및 허용에 미치는 사이버섹스 중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이버섹스 중독이 성폭력통념 및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태도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Macro 프로그램파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0이었으며,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95% 신뢰수준을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 206명(58.5.0%) 여성 146명(41.5%)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35세(34.9%)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25세(29.5%), 36-39세(9.1%), 40-45세(6.3%), 46-49세(1.4%) 50세이상(1.1%)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미혼으로 부모나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으로 자취나 독립해 살고 있는 경우는 34.1%, 결혼을 한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를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드물고 불규칙적으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1-2회 이용하는 경우로 23.3%로 나타났다. 주3-4회(13.6%), 월1-2회(1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일 사용하는 경우는 6.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이버섹스 한번 이용할 때마다의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드물고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경우(36.9%), 30분미만(38.1%), 30분-1시간 미만(4.5%), 1시간-2시간 미만인 경우(4.5%), 2시간 이상인 경우(.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사례수(구성비율)
성별	남성	206명(58.5%)
	여성	146명(41.5%)
연령	20-25세	104명(29.5%)
	26-29세	62명(17.6%)
	30-35세	123명(34.9%)
	36-39세	32명(9.1%)
	40-45세	22명(6.3%)
	46-49세	5명(1.4%)
	50세이상	4명(1.1%)
가구형태	미혼(부모/형제)	56명(15.3%)
	미혼(자취/독립)	120명(34.1%)
	결혼	88명(25%)
직업형태	직장/아르바이트	176명(50%)
	학생	113명(32.1%)
	취업준비	27명(7.7%)
	기타	34명(9.7%)
	주부	2명(0.6%)
애인/배우자	없음	162명(46%)
	있음	190명(54%)

주. N=352,

표 5.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사례수(구성비율)
사이버섹스 이용	드물고 불규칙	156명(44.3%)
	월1-2회	42명(11.9%)
	주1-2회	82명(23.3%)
	주3-4회	48명(13.6%)
	매일	24명(6.8%)
사이버섹스 시간 (1번 사용 시간)	드물고 불규칙	130명(36.9%)
	30분미만	134명(38.1%)
	30분-1시간미만	71명(20.2%)
	1시간-2시간미만	16명(4.5%)
	2시간이상	1명(.3%)
사이버섹스 접촉경로 (다중응답)	야한사진	122명(21.6%)
	야한동영상	276명(48.8%)
	야한소설	64명(11.3%)
	야한게임	10명(1.8%)
	채팅(성관련대화)	20명(3.5%)
	화상채팅(성관련요구)	1명(.2%)
	음란메일	4명(.7%)
	포르노사이트	40명(7.1)
	기타	28명(5.0%)

주. *N*=352,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 결과, 허용도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이버섹스, 성역할 태도, 성폭력통념 및 허용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사이버섹스, 성폭력통념,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 우울은 각각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2~.63, p<.05). Cohen(1988)이 제시한 상관 크기의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사이버섹스와 성폭력통념, 성폭력허용도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우울은 적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역할 태도는 사이버섹스와 유의미한 적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와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6.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				
2. 성폭력통념	.23**	-			
3. 성폭력허용도	.20**	.41**	-		
4. 성역할 태도	.12*	.64**	.30**	-	
5. 우울	.12*	.03	.10	-.025	-
평균	19.67	38.30	1.37	39.75	42.04
표준편차	12.72	19.11	2.29	15.75	14.24
왜도	.76	1.37	3.24	.43	.90
첨도	.56	1.53	14.46	-.30	.08

주. N=352, *p<.05, **p<.01, ***p<.001

3) 사이버섹스 정도에 따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앞에서 제시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사이버섹스 척도 총합이 31이상부터는 중독집단으로, 30이하는 비중독집으로 구분하였다. 중독 여부에 따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이버섹스 비중독 집단에서 성폭력통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으며, 사이버섹스 중독집단에서는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는 연구 가설과도 정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오히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가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와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중독과 비중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에 따른 변인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중독여부 (사례수)	변인	1	2	3	4
비중독 (여) 133 (남) 154	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			
	2. 성폭력통념	.18**	-		
	3. 성폭력허용도	.10	.30**	-	
	4. 성역할 태도	.05	.59**	.21**	-
	평균	15.12	36.43	1.11	38.33
	표준편차	8.34	18.23	1.74	15.03
	왜도	-.07	1.51	2.62	.47
	첨도	-1.08	1.97	9.82	-.21
중독 (여) 13 (남) 52	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			
	2. 성폭력통념	-.15	-		
	3. 성폭력허용도	-.11	.41**	-	
	4. 성역할 태도	-.33**	.72**	.41**	-
	평균	39.75	46.52	2.49	46.03
	표준편차	8.62	20.80	3.69	17.36
	왜도	1.16	1.00	2.33	.07
	첨도	.63	.79	5.85	-.49

주. N=352, $^{*}p$<.05, $^{**}p$<.01, $^{***}p$<.001

3)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남=1, 여=2)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폭력통념,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섹스 중독정도(t=7.28, p<.001), 성폭력통념(t=5.41, p<.001), 성폭력허용도(t=3.81, p<.001), 성역할 태도(t=3.17, p<.001) 즉 모든 변인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폭력통념,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이버 섹스에 보다 자주 접하며, 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8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사이버섹스	남자	23.55	11.55	7.28***	.00
	여자	14.20	12.32		
성폭력통념	남자	42,64	19.63	5.41**	.00
	여자	32.16	16.55		
성폭력허용도	남자	1.72	2.64	3.81***	.00
	여자	.87	1.55		
성역할 태도	남자	44.87	15.84	8.17*	.01
	여자	32.52	12/47		

(N=352, 남=206, 여=146) *p < .05, **p < .01 ***p<.001

4) 우울을 통제하였을 경우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이 있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선행연구(진인영, 2005; 이정윤,이상희, 2004)를 전제로 하여 우울을 각 변인들에서 통제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8>과 같다. 우울을 통제하기 전의 상관관계 <표 6>과 비교해보면 성폭력허용도의 상관이 다른 변인에 비해 수치변화가 크다 그러나 그 변화도 .2에서 .19로 변한 것이기 실제로 큰 수치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각 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9. 우울을 통제한 경우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			
2. 성폭력통념	.23**	-		
3. 성폭력허용도	.19**	.41**	-	
4. 성역할 태도	.13*	.64**	.30**	-

*p < .05, **p < .01 ***p<.001

2. 매개모형 검증

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에서 성역할 태도 매개 효과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제안에

따라 회귀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첫째, 예측변인은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은 결과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경로가 통제되었을 때,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예측변인은 결과변인에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전매개모형이 성립되며, 첫째와 둘째 조건이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를 예측변인으로, 성역할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성폭력통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

표 10. 사이버섹스 중독, 성폭력통념,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ΔR^2	F
1	성폭력통념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34	.23	4.38***	.05	.05	19.15***
2	성역할 태도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15	.12	2.31*	.02	.01	5.33*
3	성폭력통념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23	.15	3.73***	.43	.42	129.6***
		성역할 태도	.75	.15	15.09***			

*p < .05, **p < .01, ***p < .00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역할 태도, 성폭력통념과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 역시 뚜렷해지며(B=.15, p<.01), 성역할 태도가 뚜렷해지면 성폭력통념은 강해진다(B=.75 p<.00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성

폭력통념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34, p<.001). 즉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폭력통념역시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간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 (B=.23, p<.001). 이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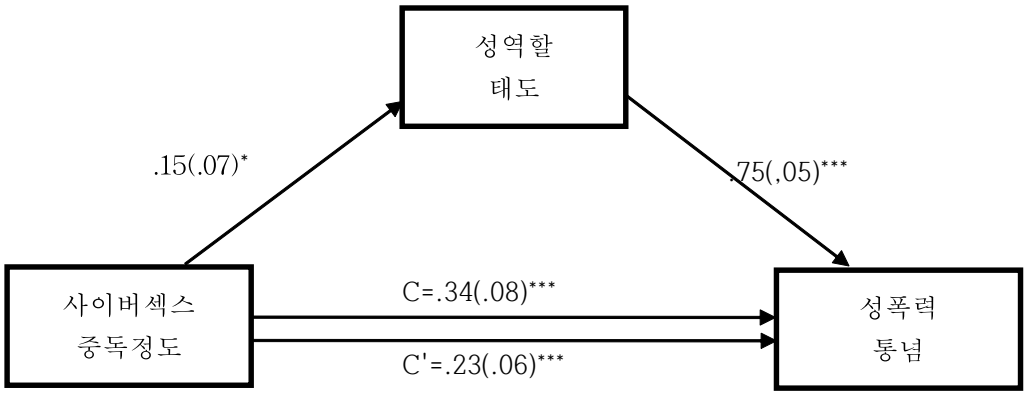

그림 3.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과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 매개모형

2)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허용도에서 성역할 태도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를 예측변인으로, 성역할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성폭력허용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사이버섹스 중독,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ΔR^2	F
1	성폭력허용도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04	.20	3.75***	.04	.04	14.06***
2	성역할 태도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15	.12	2.31*	.015	.012	5.33*
3	성폭력허용도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03	.16	3.20**	.11	.11	22.53***
		성역할 태도	.04	.28	5.46***			

* $^{*}p < .05$, $^{**}p < .01$, $^{***}p < .00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역할 태도, 성폭력통념과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 역시 뚜렷해지며(B=.15, p<.01), 성역할 태도가 뚜렷해지면 성폭력허용도도 높아진다(B=.04 p<.00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성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04, p<.001). 즉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폭력허용도 역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허용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23, p<.001).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성역할이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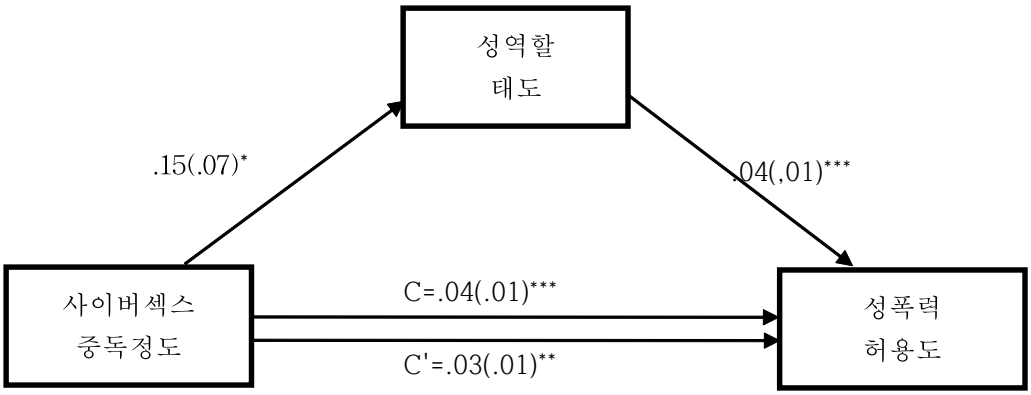

그림 4.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와 성폭력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 모형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와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가 주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1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에서 성역할 태도가 주는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2, .21]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통념에서 성역할 태도가 주는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012, .013]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예측변인	매개변인	결과변인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 CI]	총 효과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폭력통념	.23***		
					.34***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역할 태도→	성폭력통념		.11* [.02, .21]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폭력허용도	.03***		
					.04***
사이버섹스 중독정도→	성역할 태도→	성폭력허용도		.01* [.0012, .013]	

주. N=352.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Bootstrap Samples=1,000. *p<.05, **p<.01, ***p<.001

Ⅴ.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에 따른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태도가 매개변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세 이상 성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 성폭력 통념, 성폭력 허용도, 성역할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 통념, 성폭력 허용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태도를 그 변인으로 삼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352명 중 65명(여-13, 남-52)이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이버섹스 척도 점수에 따라 비중독집단과 중독집단을 나누어 변인 간 상관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독집단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에 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중독집단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 비중독집단에서만 사이버섹스 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을 더 받아들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현경, 2012; 구현영, 김성숙; 2007)의 연구 결과인 음란물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성폭력 허용도를 더 받아들인다와 반대 맥락을 나타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우선 중독집단은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집단은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자체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즉 집단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비중독 집단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낮은 사람, 중독직전인 사람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인간의 상관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처럼 나왔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이다. 사이버섹스 중독자 일수록 스스로가 음란물 이용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응답자들이 설문지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인지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까지 짐작해서 다시 피드백 할 정도였다. 이는 응답자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응답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중독집단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가능하다. 비중독집단에서는 비록 중독수준은 아니지만 사이버섹스 중독에 가까울수록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성역할 태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중독집단의 응답자들은 사이버섹스 중독은 아니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에 응답하는데 있어 보다 솔직하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로 인해 집단을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집단을 전체 하나로 두고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섹스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를 받아들이는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역시 사이버섹스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최현경, 2012; 구현영, 김성숙; 2007)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즉 사이버섹스 중독 수준이 있을수록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를 더 높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중고등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에 관해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의 사이버섹스 활동과 중독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 사이버섹스 중독일수록 성폭력 통념과 허용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사이버섹스 중독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성폭력 개념 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섹스, 성폭력통념, 성폭력허용도, 성역할 태도 즉 모든 변인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건호, 강혜자(2005)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통념을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재훈(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렇듯 성인에게서도 사이버섹스 중독 수준은 물론 성폭력 인식(성폭력 통념과 허용도)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에 있어서도 중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남녀 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함을 시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사이버 섹스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잡지, 소설 만화 등에는 여성이 강압적인 성행위를 즐기고 원한다는 그릇된 통념이 담겨 있다. 성 행위에 있어서 여성들은 자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상 왜곡된 것임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분명 달라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 간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성에

대해 접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통념이나 허용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춰주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우울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진인영, 2005; 이정윤, 이상희, 2004)를 기반으로 하여 우울을 통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우울 수준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울을 통제한 후 상관을 돌린 결과 우울을 통제하기 전과의 상관관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와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성역할 태도와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성역할 즉, 남성은 남자다운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역할이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역시 높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폭력 통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Muehlenhard, Linton (1987)의 연구에서 제시한 남성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각본을 가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로 보아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에 관해 재정립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 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수치가 변화하였다. 이는 성역할 태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섹스 중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성폭력통념이나 성폭력허용도가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 결과(최현경, 2012)와 일치되고 있으며, 여기에 성역할 태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인하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생성하였을 경우, 치료적 접근으로 성역할에 대한 태도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이버 섹스 중독으로 인하여 잘못된 성폭력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사이버 섹스 중독으로 인해 성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치료적 접근으로서 양성평등 성역할 태도를 교육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65명 중 13명(20%)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는 김인수(2014)의 연구에서 중독으로 응답한 70명중 여성의 중독이 6명(8.6%)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성의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 역시 음란물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선행 연구 하나만 가지고 중독의 증가여부를 추측할 수는 없으나, 분명 본 연구에서 여성이 2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사이버 음란물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제 음란물에 대한 영향을 남성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여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해 보자면, 본 연구는 성폭력통념에 대한 수용이 높을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행동 경험이 많다는 이석재(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사이버섹스 중독이 성역할 태도가 더해졌을 때 성폭력 통념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성폭력 통념이나 허용도는 성폭력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폭력 통념 및 허용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을 그 중 한 요인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정도가 있을수록 성폭력의 통념 및 허용도가 높이 수용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나타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섹스로 인한 왜곡된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치료요인으로 성역할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서 양성평등개념을 위주로 교육한다면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시사된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성폭력통념 및 성폭력허용도에 대한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이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과 이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표집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표집의 절차가 미흡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일부 한정적으로 특정 몇몇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하거나 SNS를 통해 설문지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균등하게 표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표집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섹스 중독경향성을 중점으로 두고 살펴본 연구이기에 사이버섹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응답자인 경우 분석 자체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결과변인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으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말고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온란인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연구 주제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항들이기에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적게 하였는데 이에 따른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가 높았어도 사이버 섹스 접촉 빈도나 시간 등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섹스 접촉 빈도나 평균 사이버섹스 접촉 시간을 조사하였지만 따로 분석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섯째, 설문 문항이 가해-피해자의 구도로 되어 있어 일부 남자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남자를 주로 잠재적인 가해자, 여자를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았다고 하면서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일부 응답자들에게 나타났다. 불쾌해서 응답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로 보았을 때 척도에 대해서 보다 응답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반감요인이 적게 드는 척도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폭력통념과 성폭력허용도 사이에서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성문화 정착을 개서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중독과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연구가 진행되었어도 그 대상이 청소년, 혹은 대학생이거나 그 정도가 한정적이다. 그렇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연구했다는 것에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게다가 현 사회에서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가 언급되는 것을 꺼려해 왔다. 그러나 사이버 섹스 중독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치료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일반 성인들의 사이버섹스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성폭력 통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사이버섹스 중독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권수현 (1998). **남성성과 성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현영, 김성숙 (2007). 청소년들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간의 관계, **대한간호 37**(7). 한국간호과학회.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정논총 1.**

김 민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고 사이버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1), 53-58

김 민 (2010). 디지털 미디어 시대 청소년 사이버섹스중독(기조발표).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학년도 학술대회자료집** 5-25

김소정, 이영철. (2011).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터넷과 성의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155-177

김소향 (2003). **남자고등학생의 사이버음란물접촉과 성폭력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숙 (2002).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의 차이.**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경 (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 72-117

김은주 (1996).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전유경 (2009). **성(性)정치학** / 케이트 밀렛 지음

김준호, 박해광 (1995). 음란물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남영옥 (2004).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의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학 연구. 11(1),** 167-192

박효정, 강숙정 (20013).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3);608-618

박미란 (2007). **성역할 태도, 성태도, 충동성 및 인터넷음란물 중독과 성폭력허용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선미 (2009).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준혁, 김정범, 류설영 (2006). 대학생에서 기질성격, 스트레스 반응과 인터넷 중독경향과의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12(1),** 29-38.

백혜정, 김은정 (2008).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성자 (1997). 남자대학생들의 데이트 성폭력성향 파악과 대처 방아 모색을 위한 연구: 대구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81-211

심재웅 (2013). 대학생드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탐색이유와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성별과 인터넷 프로노그래피 이용량을 중심으로. **한국콘테츠학회논문지, 13**(6), 148-157.

양돈규 (20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상관성, **청소년학 연구. 7**(2). 117-136

우형진, 이정기 (2012).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미디어 이용량,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에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 연구, 16**(3), 55-84

유재훈 (200). **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성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명숙 (2012), 청소년의 성의식 • 성태도 • 성행동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미치

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윤예진 (2008).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한동대학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건호, 강혜자 (2005). 성폭력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23-40

이정은 (1998). **자아상,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의 관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석재 (1999). 성폭력통념 척도의 개바로가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2** 131-148

이석재, 최상진 (2001). 성폭력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력 사건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9**(2), 97-116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56-282

이혁진 (2013).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정도와 외로움,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효진 (2009). **청소년의 성행동 영향요인 연구: 음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8.** 177-202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학회지, 2**(2). 39-59

주석진 (2002). **사이버섹스 중독이 청소년의 성 비행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리애, 하승수, 권석만 (200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행동. **한국임상심리학회지:임상, 21**(4)

진인영 (2004). **사이버섹스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영단 (2002). **음란물 접촉과 성폭력통념 수용도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최현경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의식•성행동•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호선민, (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 **2015방송통신심의 연감.**

검찰청 범죄통계 범죄백서(2016). **2015 범죄분석**

Berkowitz, L. A.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Y: McGrow Hall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verly, A. (1996). Rape Warrfare: The Ho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By Beverly Allen. *Journal of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Vol.33* No.480-483.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r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Carnes, P. (1983).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Minneapolish, MN, U.S.A.: CompCare

Cooper, Al., Putnam, D. E., Planchon, and Boies, S. C. (1999). Oline Sexual Compulsivity: Getting Tangled in the Net,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6(2), 790104.

Crown (2003). Everything Tou never Wanted You Kids to Know About sex, But Were Afraid They'd Ask: the Secrets to Surviving Your Child's Sexual Developmentfrom Birth to the Teens; By Justin Richardson.

Cota, A. A., & Xinaris, s. (1993). Factor structure of the sex-rdle ideology scale: Introducing a short form. *Sex Roles, 29*(5-6), 345-358

Ellis, L. (1991). A synthesized biosocial theory of the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31-642

Faulkner, G. E., Kolts, R. L., & Hicks, G. F. (2008). Sex role ideology, relationship context, and response to sexual coercion in college Females. *Sex Roles, 59*(3-4), 139-150

Groth, N. (1979). Men who rape. NY: Plenum

Green, B. A., Carnes, S., Carnes, P., & Weinman, A. (2012). Cybersex Addiction Patterns in a Clinical sample of Homosexual, Heterosexual, and Bisexual Men and Wome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9,* 77-89,

Herkov, M.(2006) what is sexual addiction?. Psych Cental. http://psychcentral.com/lib/what-is-sexual-addiction/에서 2016.8.10. 자료얻음

Kim, S. H. (2004).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sexual violence

related to cyber pornography exposure of high school male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Lambert, A. J. & Raichle, K. (2000).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in mediating judgment of blame in the rape victims and their assailants:A test of the just world,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egitimization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7), 853-863

Lee, H. B. (2004). Study on the influence of teenagers' internet use their sexu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Lina Guzman, Ph.D., SuZanne Ryan, Ph.D., and Zakia Redd, M.P.P. 2004. *What is "Healthy Marriage"? Definiing the Concep By Kristin Anderson Moore, Ph.D., Susan M. Jekielek, Ph.D., Jacinta Bronte-Tinkew, Ph.D., Child Research brief.*

Lo, V., & Wei, R.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2), 221-137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4*, 186-196.

Stephen, A. S. & Donell, K. (1933).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5*(4), 941-952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19-31

Young, K. S (2001). Tangled in the web: Understandng Cybersex From fatasy to addiction US: 1st Books Library.

Young, K. S (2008). Whatis cybersexual addiction?;sings and treatment of cybersexual addiction? http://www.healthyplace.com/addictions/center-for-internet-addiction-recovery/waht-is-cybersexual-addiction/에서 2016.8.11. 자료얻음

Delmonico, D. (1997). Cybersex: high teach sex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pulsivity, 7, 5-29

Stephen, A. S. & Donell, K. (1933).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5(4), 941-95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xual Addiction and Rape myths and Rape acceptability
-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

Chung YunKy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relationships among Cyber-sexual Addiction, Rape myths, Rape acceptability and mediating variable such as Gender role attitude. The total of 410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complete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such as demographic information, Cyber-sexual Addictions Scale, Rape myths Scale and Rape acceptability Scale and Korean Gender role attitude Scale. Only 352 cases of over 20 years old in Southkorea (206 males, 146 females) were chosen for data analysis. SPSS 21 and sobel macro program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dditionally, Bootstrapping analysis was conducted for verifying signific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yber-sexual Addiction had correlated positively with Rape myths and Rape

acceptability. Second, Gender role attitud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yber-sexual Addiction and Rape myths, Rape acceptability. Third, Gender role attitud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Cyber-sexual Addiction and Rape myths and Rape acceptabilit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 : Cyber-sexual Addiction, Gender role attitude, Rape myths, Rape acceptability

부 록

부록 1.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

부록 2. 성폭력 통념 척도

부록 3. 성폭력 허용도 척도

부록 4. 성역할 태도 척도

부록 5. 우울 척도

부록 1.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

사이버섹스란?

인터넷, 휴대폰 모바일 상에서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 관련 웹사이트, 동영상, 성인방송 기타 인터넷 음란물** 등을 충동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몰입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트너를 찾아 성인 채팅방이나 채팅앱,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성적 자료(동영상 전송, 야한 사진 전송), 공상을 나누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결코아니다	아주드물게그렇다	가끔그렇다	종종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항상그렇다
01	온라인 접속 시(모바일, 채팅앱) 음란물에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0	1	2	3	4	5
02	음란물 접속(모바일, 채팅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이 염려한다.	0	1	2	3	4	5
03	음란물을 보는 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인해 가정,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0	1	2	3	4	5
04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0	1	2	3	4	5
05	음란물 사이트(모바일, 채팅앱) 접속이 불가능해지면 불안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난다.	0	1	2	3	4	5
06	음란물(모바일, 채팅앱)이 없는 생활은 따분하고 공허하며 재미가 없을까봐 염려한다.	0	1	2	3	4	5
07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거나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는 음란물(모바일, 채팅앱)을 본다.	0	1	2	3	4	5

08	인터넷(모바일, 채팅앱)음란물 사용에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다.	0	1	2	3	4	5
09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가족, 친구, 애인)에게 인터넷(모바일, 채팅앱)에서의 성적 접속을 숨기려고 한다.	0	1	2	3	4	5
10	음란물 사이트(모바일, 채팅앱)를 발견하면 저장하고, 음란물 사이트를 찾아다닌다.	0	1	2	3	4	5
11	인터넷 음란물(휴대폰 모바일, 채팅앱 포함)이용으로 밤을 새거나 잠을 자지 못한다.	0	1	2	3	4	5
12	인터넷 음란물(모바일, 채팅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이버섹스에 대한 환상에 빠진다.	0	1	2	3	4	5
13	성적으로 새로이 눈뜨거나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음 인터넷 접속(모바일, 채팅앱)을 한다.	0	1	2	3	4	5
14	현실생활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에 대한 환상을 맛보기 위해 익명의 대화나 사이버 섹스를 하곤 한다.	0	1	2	3	4	5
15	오로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채팅(화상 포함)을 하거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 많다.	0	1	2	3	4	5
16	음란물을 보거나 사이버섹스를 한 후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0	1	2	3	4	5
17	인터넷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다른사람을 속인 적이 있다.	0	1	2	3	4	5
18	음란물을 볼 때마다 자위행위를 한다.	0	1	2	3	4	5
19	배우자나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것보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0	1	2	3	4	5
20	음란물에서 본 장면을 화상채팅으로 경험해보거나 실제로 성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5

부록 2. 성폭력 통념

번호	문 항 내 용	매우부정				보통				매우긍정
01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1	2	3	4	5	6	7	8	9
02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성폭력을 당한다.	1	2	3	4	5	6	7	8	9
03	성폭력을 보고하는 대부분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1	2	3	4	5	6	7	8	9
04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1	2	3	4	5	6	7	8	9
05	여자가 친근감이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	2	3	4	5	6	7	8	9
06	남자가 식사, 술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1	2	3	4	5	6	7	8	9
07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0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09	여자보다 남자는 성 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만하다.	1	2	3	4	5	6	7	8	9

11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력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	1	2	3	4	5	6	7	8	9
12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봉"이다.	1	2	3	4	5	6	7	8	9
13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하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14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5	끼 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1	2	3	4	5	6	7	8	9
16	보고된 대부분의 성폭력 사례는 임신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날조한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7	성폭력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8	많은 여자는 성폭력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	1	2	3	4	5	6	7	8	9
19	대개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1	2	3	4	5	6	7	8	9
20	어떤 여자들은 성폭력 당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6	7	8	9

부록 3. 성폭력 허용도

번호	문 항 내 용	절대로 안된다	대체로 안된다	경우에 따라 된다	전적으로 된다.
01	욕설이나 비방, 거친 언어로 이성을 공격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2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3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4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5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그/그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6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가용하는 행동은 허용가능하다.	0	1	2	3
07	연인 간에 여자의 "NO"를 무시하고 남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8	원치 않는 아내에게 남편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09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교하는 행동은 허용가 능하다.	0	1	2	3
10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며 구애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11	상대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서 보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12	헤어지기 원하는 상대에게 만나주지 않거나 헤어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0	1	2	3

부록 4. 성역할 태도

번호	문 항 내 용	매우부정			보통			매우긍정
01	남편은 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법적 대리인 이어야 한다.	1	2	3	4	5	6	7
02	지역사회에서 부인의 활동들은 남편의 위치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	3	4	5	6	7
03	결혼한 여성도 남자를 친구로서 자유롭게 사귈 수 있다.	1	2	3	4	5	6	7
04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	1	2	3	4	5	6	7
05	여자가 욕하는 것이 남자가 욕하는 것보다 더 불쾌하다.	1	2	3	4	5	6	7
06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 때, 비록 남자가 여자를 매우 좋아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일은 해야 한다	1	2	3	4	5	6	7
07	남자는 호감이 가더라도 관계를 주도하는 여자를 주의해야 한다.	1	2	3	4	5	6	7
08	결혼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경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09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주된 책임은 경제적 지원과 규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2	3	4	5	6	7
10	여자는 남편의 평판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조심해야 한다.	1	2	3	4	5	6	7
11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1	2	3	4	5	6	7
12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	1	2	3	4	5	6	7
13	남자의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일에 얽매일 수 없다.	1	2	3	4	5	6	7
14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의 첫 번째 의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	2	3	4	5	6	7

15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아내는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6	7
16	여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남편의 직업을 돕는데 더 신경 써야 한다.	1	2	3	4	5	6	7

부록 5. 우울 척도 (CES-D)

번호	문 항 내 용	거의 드물게 1일 이하	2일	3일	4일	거의 대부분 5~7일
0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5
0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1	2	3	4	5
0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1	2	3	4	5
0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0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	2	3	4	5
06	우울했다.	1	2	3	4	5
0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5
0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1	2	3	4	5
0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10	두려움을 느꼈다.	1	2	3	4	5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5
12	행복했다.	1	2	3	4	5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1	2	3	4	5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5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5
16	생활이 즐거웠다.	1	2	3	4	5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	2	3	4	5
18	슬픔을 느꼈다.	1	2	3	4	5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5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1	2	3	4	5